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2월 22일**

나는 행복한 전도자 신33:26-29

우리는 강단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 지난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수론의 이름의 의미를 알게하시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셨다.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이름으로 부르시고 나를 도우시려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묵상 할때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세력을 꺾어주셔서 지역복음화와 개인구원과 이후에 받은 축복으로 영적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담임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주일 강단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237나라와 5000종족을 살려야 하는 이유와 내용을 매주 세계복음화 강단 류광수목사님의 메시지 통해서 우리 정체성을 날마나 확인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속에 오늘도 미국,남미, 렘넌트, 다민족살리는 현장속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것이고 우리는 그일에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언약이다. 내가 미국에 와서 사는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미국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이지역에 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증인되라고 보내셨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인해야 할것이다. 그러니 이 흐름속에서 함께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한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응답과 올바른 복음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아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주역이 될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항상 함께 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이 나에게 확인되어질때 확신을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될것이다. 오늘 예배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받은축복이 무엇이고 무엇을 현장에서 증언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서 내가 있는 곳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확인해야 할것이다. 우리 인생은 행복하려고 무엇을 하는 인생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필요한 모든것을 다 주셨기에 예배를 통해 그 축복들을 찾아내서 행복을 누리고 증인되라는 것이다.

1.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망대(27절)

지금까지의 훈련을 통해서도 이미 전도자의 자리에 있게 되었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후대와 현장에 전달해야 하는것을 알게 된것이다. 이제 남은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것을 믿고 기도로 도전하는 것만 남았다. 이를 위해서 개인이 기도할수있는 3집중 아침, 낮, 밤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와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을 하고 묵상을 해야 할것이다. 왜냐면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그리스도 이기때문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처소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묵상할때 우리를 속이는 죄의 습성과 죄로 오는 저주가 무너지게 되었다. 이것을 통로로 하는 귀신과 사단은 결박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의 대적을 멸하시고 쫓아버리실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수 있는 신분을 주셨다. 그 비밀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그리스도이시다. 그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선지자이시며 우리를 죄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참제사장이시다. 처음부터 우리를 완전히 속여왔던 거짓말쟁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

내리고 우리에게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참왕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 이름이 예수님이란것을 오늘도 확인하고 고백하고 말해야 할것이다. 내가 영원히 부르다가 갈 이름 예수! 부르기만 해도 우리가 행복해지는 이름 예수님이시다.

2.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정(28절)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후에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역사로 예배, 기도, 말씀중심으로 살아갈수 있게 하셨다. 우리에게 미국에 살아야 할 이유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일, 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하다. 미래를 준비하는 렘넌트의 삶과 그들의 발판이 되어주려는 부모들과 중직자들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기에 감사하다.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것 창세기3장 나중심, 창세기6장 물질중심, 창세기11장 성공중심으로 살아왔기에 하루하루를 살아갈때 걱정이되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겨서 주춤거리며 머뭇거리고 있지만 분명한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현장에 많은 사람들과 237나라와 5000종족에까지 이 살리는 복음이 전달하시려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후에 한것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드리는 삶이었고, 그런데 그것이 세계를 살리는 비밀이었다. 전세계에 터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은것이다. 이것을 위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것을 다 채워주셨다.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불기둥, 더위를 막아주시는 구름기둥, 매일 매일 그들의 허기를 채우시는 맛나와 바위에서 주시는 생수 ,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것을 하늘에서 공급을 해주신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우리들의 삶의 여정도 그때와 같다는 것이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팀을 꾸려 전도와 선교현장으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심을 말하는 이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하면 이것이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응답인것이다. 그래서 우리인생은 정말 행복한 여정인 것이다.

3. 나는 행복한 전도자다(29절)

결론으로 하고 싶은 말이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매주 주일학교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살아가고 있다니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이 말은 드디어 40년의 광야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땅에 들어가게 될 여수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요 사랑의 메시지요 부러움의 메시지이다. 왜냐면, 모세는 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억울해하거나 불만을 가진것은 아니고 함께 못들어감에 대한 아쉬움은 표현하기도 했다. 메시야께서 오실 땅, 여자의 후손이 오실 그 땅을 향해 평생을 달려온 모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셔서 보좌의 축복을 언제나 누릴 수 있고 그 이름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고 시대를 향한 생명의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은 모세가 부러워 할만한 사람들이다. 오늘 최고의 축복을 받든 여러분들이 가야할 이정표는 세계복음화 입니다. 237나라와 5000종족을 살리는 그길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실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전도자다. 평생에 승리하시고 평생에 감사하시고 평생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한다.